



#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6월 12일 성삼위일체주일 · 다해 · 백색

제57-23호

## 삼위일체 - 구원의 땀과 피와 숨결

(요한 16:12-15)

“우리는 창조주이신 성부 하느님,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구원 잔치인 전례 때에 드리는 이 신앙고백과 찬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다르나 한 분 하느님’이시라는 삼위일체 신앙을 선언합니다.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삼위일체 하느님 신앙은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정통 그리스도교와 빛나간 종파를 판가름하는 잣대입니다. 성공회는 삼위일체 하느님 신앙에 우뚝 서서 삼위일체를 본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느님은 창조의 땀방울과 숨으로 우리에게 녹아계십니다. 하느님은 여느 종교와 신화에 나타나는 신과는 달리, 손수 더러운 흙을 손에 묻히는 수고와 땀으로 인간의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따로 나뉘지 않고, 하느님의 형상을 따르고 거룩한 숨결(영)이 스며들어 우리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창조는 이처럼 하느님과 인간과 거룩한 숨결이 태초부터 한데 어우러진 세계입니다. 하느님이 짓든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정의로운 관계라 말합니다.

삼위일체 성자 하느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창조 때 마련된 하느님과 인간의 연대가 끊어지고 관계가 부서져서 인간은 저 멀리 떨어졌습니다. 하느님은 그 낮은 데로 몸소 내려오셔서 우리 삶의 고난을 나누며 우리 손을 붙

잡아 끌어올리십니다. 몸이 찢긴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를 우리 몸에 새로 넣어주셔서 먹여 주셔서 창조 때의 새 생명이 우리 핏줄에 돌게 하십니다. 성자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성령 하느님은 우리가 부활의 자유로운 생명을 살도록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서로 떨어져 서로 억압하고 싸우던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는 성령 하느님을 함께 모시고 새로운 몸과 생활로 거듭납니다. 성서가 전하듯이, 절대자 하느님과 인간의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하느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가까워지고, 자녀의 관계로 친밀해지고 서로 벗이 되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자유와 일치의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정의와 사랑과 자유 안에서 하나 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부족한 대로 서로 환대하며 자리를 내어줍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거룩한 친교에 참여하며 기뻐하고, 그 친교를 우리 몸으로 익히는 곳입니다. 교회의 전례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세상 안에서 살되, 이 세상이 꿈 꾸지 못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새로운 관계를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배우며 살기 때문입니다..

(주낙현 신부)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 할 사 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 사 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 회 장 김종희 요셉  
사 제 회 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윤희애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이중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환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중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 전례와 사목

## 1. 성삼위일체주일

오늘은 성삼위일체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의 신비한 일치와 친교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되새기며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 2.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평일 아침 성찬례를 오전 6시 30분 화·수·목·금에 성전에서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신앙 생활에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3. 교우 주소록 갱신과 수정

교우 주소록을 갱신하여 수정하고 있으니, 구역과 단체를 중심으로 수정 내용을 종합하여 주시고, 개인이 신청할 경우, 새 주소와 연락처를 이메일 stchris@anglican.kr 로, 또는 카카오톡 stchris1966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알림

## 1. 세례성사와 신자영접

오늘 오전 11시 성찬례 중 성전  
세례성사: 백지웅(후견인 주요한), 강현모(후견인 송종익)  
신자영접: 심종은, 최유정(후견인 한재업, 박계자)

## 2. &lt;신학잡담회&gt; 시즌 2

일시: 6월 16일 (목) 오후 2시  
장소: 스멜팅 커피 (문래역 7번 출구)  
주낙현 요셉 신부와 함께하는 <신학잡담회 - 시즌 2>를 시작합니다. 신학잡담회는 신앙 생활, 신학과 교회 이야기, 사회에 관한 신앙인의 관점을 성직자와 참여자가 자유롭게 나누는 모임입니다. 영등포 성당 인근(문래역 7번 출구) 카페에서 진행합니다. 남녀노소, 종교유무를 떠나 누구든 환영합니다. 음료 한 잔과 열린 마음을 준비하여 오세요.

## 3. 강남교무구 성직자 워크숍

일시: 6월 13(월)~14(화)일, 장소: 남양주 성생원 성당  
\* 워크숍 일정으로 6월 14(화) 아침 성찬례는 없습니다.

## 4. 대한성공회 전국의회

일시: 6월 18일 (토) 오전 10시 장소: 서울주교좌성당  
\* 전국의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 ■ 활동단체 소식

## ◆ 어머니회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1천원
- 엿기름 600g 4천원

## ■ 교우 소식

## ◆ 꽃봉헌

딸(허의진 유니게) 생일을 맞이하여 윤영옥 교우께서 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순경(16일)

## ◆ 킬트 전시 - 성당 로비와 다목적 홀 ◆

성령강림주일부터 약 한 달 동안 '킬트' 작품을 성당 로비와 다목적홀에 전시합니다. 우리 성당의 문해화 사과 교우의 작품입니다. 킬트는 버려진 조각,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형질을 서로 모으고 엮어서 큰 아름다움과 쓸모를 만드는 멋진 예술 작업입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 저마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양과 색깔이 어떨든, 우리 자신의 다채로운 삶을 하느님께 드리도록 초대하십니다. 서로 엮어서 만드는 아름다움에 교회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성당은 이후에도 여러 예술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나누려 합니다.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리며 우리 삶이 것처럼 환하게 피어나가도록 기도와 마음을 모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 십일조 · 월정현금

강수옥 고창현 고흥 박순연 곽은영 김건수 김건우 김영혜 박영수 서세룡 송미경 우영현 윤범기 윤선구 윤영옥 이용혜 이충웅 전유성 정상임 정정훈 조진성 조혜순 주애다 추경민 한재업

## ■ 주정현금

김경아 김삼홍 문해화 박경민 박남미 서정민 선병순 송미경 송종익 신회숙 윤영옥 윤영자 이경희 이성빈 이은미 이정숙 이종한 정명옥 정은숙 주애다 주창순 한부순

## ■ 감사현금

고창현(생일) 김용학(성령강림) 변금숙(성령강림) 서남철(성령강림) 송미경(성령강림) 우영현(범사/영상장비) 윤영옥(평일미사) 이성빈(성령강림) 이종한(생일/성령강림) 이충웅(생일) 주경심(성령강림) 최종주(간강)

## ■ 기타현금(미사 예물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 목적 현금

## ■ 나눔의집현금

윤영자 주낙현신부 주창남

## ■ 예수사랑현금

유혜경

## ■ 극기현금

이태훈

##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현금) 일반·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 삼위일체의 신비와 교회의 삶

〈성령강림주일〉로 ‘위대한 부활의 50일’을 완성하고, 이제 〈성삼위일체주일〉로 부터 〈왕이신 그리스도주일〉까지 연중(年中)절기를 시작합니다. 연중절기를 성삼위일체주일로 시작하는 까닭은 우리 구원이 삼위일체 하느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 신앙생활이 삼위일체 하느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실천하려는 뜻입니다.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르나 한 분이라는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신비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의지와 활동을 드러냅니다. 신앙생활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일들을 드높여 찬양하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의 친교와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함께 고백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을 창조하신 자비로운 성부 하느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숨결로 창조와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이끄시는 협조자 성령님과 함께 걷습니다.

15세기 안드레이 류블레프 수사 신부님의 〈성 삼위일체 이콘〉(15세기)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와 사랑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친 나그네 셋을 환대하여 배푼 잔치의 장면이 이 이콘의 원래 배경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초대에 응하여 함께 나누며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그 친교의 잔칫상에서 서로 초대하고 의지하며 우리 인간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은 친교와 헌신으로 드려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예배이며 삶입니다. 연중주일을 성삼후주일(聖三後主日)로 부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와 사랑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 † 기도해 주세요 †

#### ■ 교회를 위하여

- ◆ 영등포 성당의 신앙 회복, 전례 회복, 교회 회복을 이루도록
- ◆ 지역 사회와 협력하도록
- ◆ 새교우를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 코로나 상황을 넘어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 ◆ 사회와 정치 안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위하여
- ◆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 ■ 가정을 위하여

- ◆ 주간 평일에도 성무일도를 바치는 가정이 되도록
- ◆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하여

####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하

#### ■ 임 신 정셋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얼(캐나다)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http://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입당성가(선다) ..... ♪ 324장 ..... 다함께  
정심기도 ..... ✧ 244 ..... 집전자  
죄의고백 ..... ✧ 296 ..... 다함께  
영광송 (B곡) ..... ✧ 246 / ♪ 75 .....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 집전자

찬양받으실 하느님, 성부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며, 성령으로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 놀라우신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닫고 영원히 하느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읽는다) ..... 잠언 8:1-4, 22-31 ..... 말은이  
시편 ..... 시편 8편 ..... 다함께



- 1 하느님, 우리의 | 주-이여!  
○ 주님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이리 | 크십나-이까!  
2 주님의 영광 기리는 노래, 하늘 높이 | 피집니다.  
○ 어린이, 꽃먹이들도 | 노래합니다.  
3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 쫓으시고  
○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케 | 하셨습니다.  
4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 하늘과  
○ 달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 우레러 보이면  
5 사람이 무엇이기에 | 이토록 생각해 | 주시며  
○ 사람이 무엇이기에 | 이토록 보살피 | 주십나-이까?  
6 그를 하느님 다음가는 자리에 | 앉히시고  
○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 주셨습니다.  
◎ 영광이 |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아-|멘

2 독서(읽는다) ..... 로마 5:1-5 ..... 말은이  
복음환호송(A곡) ..... ✧ 296 / ♪ 55 ..... 말은이  
복음서(선다) ..... 요한 16:12-15 ..... 말은이  
설교(읽는다) ..... ..... 말은이  
세례성사와 신자영접식 ..... ✧ 331 & 803 ..... 다함께  
니케아신경(선택)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 251 .....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선다) ..... ✧ 296 ..... 다함께  
봉헌성가 ..... ♪ 325장/엑솔타테회 ..... 다함께  
예물기도 ..... ✧ 296 ..... 말은이  
성찬기도 (1양식) ✧ 257  
거룩하시다 (B곡) ..... ✧ 257 / ♪ 77 ..... 다함께  
기념환호송 (1양식) ..... ✧ 259 / ♪ 62 ..... 다함께  
마침영광송 ..... ✧ 259 / ♪ 64 ..... 다함께  
주의기도 ..... ✧ 269 / ♪ 65 ..... 다함께  
성체나눔 ..... ✧ 269 .....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B곡) ..... ✧ 270 / ♪ 78 ..... 다함께  
영성체(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 성가대  
영성체 후 기도(선다) ..... 다함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하여 다스리시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신앙을 굳게 지켜 주님의 길을 깨닫고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항상 깨달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선다) ..... ✧ 297 ..... 집전자  
파송 ..... ✧ 272 ..... 말은이  
파송성가 ..... ♪ 575장 .....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6월 12일)		다음 주일 성찬례 (6월 19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설 교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우영현	이복련	우영현	박계자
2독서	서정민	박남미	서정민	이성식
대 도	신명식	김종희	신명식	변금숙
십자가	윤용환	차기성	박해웅	이용해
다음 주일 6월 19일	전례독서 열왕상 19:1-19   시편 42   갈라 3:23-29   루가 8:26-39 성 가 입당 254장   봉헌 412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365장			
교 회 청 소	6월 18일 안드레회 3조 김삼홍 차기성 전병도 김종희 김종현		6월 25일 모니카회 1조 곽순연 변금숙 변진선 선병순 유옥량	